

롯데케미칼, 고부가 사업 본궤도 1분기 1000억 이상 적자축소 기대

매출 5.1조, 영업손실 203억 전망
고부가 제품 중심 체질개선 성과
중동전쟁 추이·수 공급과잉 등 변수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전경.

롯데케미칼이 고부가 제품 확대를 바탕으로 실적 개선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1분기에는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손실 규모가 크게 줄어든 전망인 만큼 향후 고부가 사업 확대가 수익성 회복을 이어가는 핵심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오는 11일 1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에프엔가이드는 롯데케미칼의 올해 1분기 매출을 5조1562억원, 영업손실을 203억원으로 전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5%가량 증가하고 영업손실은 약 1063억원 줄어드는 수준으로 적자 폭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분기 실적 개선은 저가 원재료 투입과 제품 가격 상승이 맞물린 레깅 효과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첨단소재 부문도 실적 회복의 한 축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동차와 가전 등 전방 산업의 재고 축적 수요가 살아난 가운데 기능성 소재 판매가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롯데케미칼은 전남 울촌산단에 약 3000억원을 투자해 국내 최대 규모의 컴파운딩 공장을 구축했다. 지난해 10월 일부 생산라인의 상업 가동을 시작했으며 올해 하반기 최종 준공을 앞두고 있다. 준공 이후 연간 생산능력은 50만톤 규모로 확대된다.

울촌 공장에서는 고부가합성수지(ABS)와 엔지니어링플라스틱(EP) 등 스페

셜티 제품이 생산된다. 롯데케미칼은 향후 슈퍼 엔지니어링플라스틱(Super EP) 등 제품군을 확대해 피지컬 AI와 우주항공,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 분야까지 소재 적용처를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롯데케미칼은 중장기적으로도 범용 사업 축소와 고부가 사업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오는 2030년까지 범용 사업인 기초화학 비중을 40% 미만으로 낮추고 첨단소재와 정밀화학, 전지소재, 수소 등 미래 성장 사업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맞춰 기초화학 부문에서는 사업 재편도 병행되고 있다. 롯데케미칼 대산은 HD현대케미칼과의 합병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수 사업 역시 구조조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범용 사업 효율화로 확보한 투자 여력을 첨단소재와 정밀화학, 전지소재, 수소에너지 등 성장 사업에 재투입해 수익 구조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정밀화학은 고부가 식의약 소재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테트라메틸암모늄 클로라이드(TMAC)·테트라메틸암모늄 하이드록사이드(TMAH) 중심의 반도

체 케미칼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전지소재는 AI용 회로박과 하이엔드 전지박 제품 비중 확대에 나서고 있으며 수소에너지는 합작사 롯데SK에너루트를 중심으로 연료전지 발전과 수소 인프라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다만 고부가 사업 확대와 사업재편이 본격적인 성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업황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중동 정세 안정 이후 유가와 제품 가격이 하락할 경우 역레깅(원재료 투입 시차에 따른 이익 감소 현상) 부담이 나타날 수 있고 중국발 공급과잉 역시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업계 한 관계자는 "1분기에는 레깅 효과로 손실 규모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앞으로의 실적은 고부가 제품 확대 흐름을 중심으로 봐야 한다"며 "범용 제품 의존도를 낮추고 스페셜티 비중을 높이는 전략이 이어진다면 실적 개선 흐름도 점차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타이어 3사, 중동사태에도 1분기 실적 질주

한국타이어 영업익 5070억... 43% ↑
넥센타이어 사상 최대 분기매출 달성
금호타이어 북미·유럽 중심 실적방어

국내타이어 3사(한국타이어·금호타이어·넥센타이어)가 올해 1분기 중동사태 여파에도 고인치 중심의 고수익 제품 판매 확대에 호실적을 기록했다. 다만 원자재와 물류비 인상 등은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타이어 브랜드 1위인 한국타이어는 1분기 영업익 507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43% 증가했다. 매출은 5조3139억원으로 7.1% 증가했으며 순이익은 3724억원으로 19.3% 늘었다. 타이어 부문 매출은 2조5657억원으로 9.3% 늘었고, 영업이익은 4375억원으로 31.1% 증가했다. 영업이익률은 17.1%를 기록했다. 한국타이어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 중심의 신차용 타이어 공급 확대와 유럽·한국·중국에서 교체용 타이어 판매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넥센타이어는 1분기 매출액 8382억원, 영업이익 542억원으로 분기 매출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8.7%, 매출액은 33.1% 증가했다. 넥센타이어는 유럽과 미국 중심의 안정적인 성장흐름과 유럽 공장 2단계 생산 체계 안정화와 기존 거래선 확대 및 신규 고객 확보가 실적을 이끌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광주공장 화재 여파로 인한 생산 차질에도 1분기 매출이 1조1678억원으로 전년 동기 3.2% 감소한 반면 영업이익은 147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0.3% 늘어났다.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신차용(OE) 및 교체용(RE)

타이어 수요가 동반 성장한 것이 1분기 실적 방어를 이끌었다는 설명이다.

타이어 3사는 수익성 확대를 위해 프리미엄 라인업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아이온과 벤투스 등으로 승용프리미엄 시장 선점에 집중하는 한편 '스마트 투어링 AL31'로 중장거리 시외·고속버스 프리미엄 타이어 시장 공략에 집중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프리미엄 SUV 전용 타이어 '그루젠 GT(장거리 고속 주행) 프로'를 출시하고 글로벌 SUV 타이어 시장 공략에 나섰다. 넥센타이어는 올해 1분기 고성능 타이어 '엔페라 스포츠'와 올웨더 타이어 '엔블루 포시즌 2'를 유럽·미국에 이어 국내 시장에도 출시하며 프리미엄 수요 공략에 대응하고 있다.

다만 이같은 흐름이 2분기에도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되면서 타이어 핵심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유가 상승에 따른 해상운임 부담도 확대되고 있다. 글로벌 해상운송의 운임 수준을 나타내는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지난 2월 말 1333.11포인트에서 지난주 1954.21로 42%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이어업계 관계자는 "유가 상승과 물류비 부담은 글로벌 기업들의 공통문제"라며 "실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타이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가격 인상으로 시장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어 기업들의 고민은 커질 것"이라며 "원가 절감과 판매 확대를 위한 전략 대응이 하반기 실적을 좌우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성운 기자 ysw@

현대차그룹-KAI, 항공 교통망 구축 '맞손'

미래 항공 모빌리티 기체 개발 MOU

현대자동차그룹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이하 KAI)이 미래형 통합 항공 교통망 구축을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 이번 협력은 지난 2021년 한국형 도심항공교통(UAM) 시장 조성을 위한 기술·인프라스트럭처 협력 추진을 확장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8일 현대차·기아 본사에서 현대차그룹 장재훈 부회장 및 KAI 김중출 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래 항공 모빌리티(AAM, Advanced Air Mobility) 개발을 위해 '항공용 전동화 파워트레인'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 항공 모빌리티 기체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현대차그룹의 항공용 전동화 파워트레인 개발 역량과 KAI의 항공기체 개발 역량을 활용해 경쟁력 있는 미래 항공 모빌리티를 개발하고 양산하기 위한 것으로, 양사는 기술적, 인적 자원 공유는 물론 향후 공급망 및 인증, 고객 네트워크 분야까지 포괄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현대차그룹의 미국 미래 항공 모빌리티 전문법인, '슈퍼널'과 KAI가 공동으로 AAM 기체를 개발하고, 현대차·기아항공파워트레인사업부



지난 8일 현대차·기아 양재동 본사에서 현대차그룹 장재훈 부회장(왼쪽)과 KAI 김중출 사장이 '항공용 전동화 파워트레인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 항공 모빌리티 기체 공동 개발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에서 개발중인 항공용 전동화 파워트레인 상용화를 위해 협력한다. 또 양사는 항공산업 전반에 걸쳐 신규 협력 분야를 도출해 협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내 최초로 AAM 시장 진출하며 선도적인 위치를 이어가고 있는 한화그룹과의 기술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AAM 분야에 적용할 수소연료전지와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한국의 항공우주 산업을 이끌고 있는 KAI와의 협업은 우리가 미래 항공 모빌리티를 개발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큰 힘"이라며 "안전하면서도 매력적인 미래 항공 모빌리티를 선보여 모빌리티의 지평을 하늘길로 넓힐 것"이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류재철 "이기는 실행 집중... 일등 LG전자 목표"

(LG전자 CEO)

류 CEO, 구성원 직접 소통 나서
'품질·비용·납기' 경쟁력 재건 강조



류재철 LG전자 CEO가 최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개최된 타운홀 미팅에서 구성원과 함께 성장하는 LG전자를 위한 '리인벤트 2.0'을 발표하고 있다. /LG전자

"문제를 드러내고 이기는 실행에 집중해 구성원과 함께 성장하는 일등 LG 전자를 만들자."

10일 LG전자에 따르면 류재철 LG전자 CEO는 최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진행된 타운홀 미팅에서 이같이 말했다. 취임 후 처음 마련한 이번 미팅은 전체 구성원들과 직접 마주 앉아 회사의 방향성과 조직문화 변화 구상을 공유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류 CEO는 이날 기존 조직문화 혁신 캠페인 '리인벤트'를 '리인벤트 2.0'으로 재정의하며, 문제를 드러내고 실행력을 높이는 방식의 조직 혁신을 강조했다. 문제 드러내기는 해결해야 할 문제와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주저 없이 이를 드러낼 수 있는 문화를 만들자는 의미다.

류 CEO는 "같은 사안이라도 관점에 따라 개선의 기회가 되기도, 반대로 현실 안주가 되기도 하는 만큼 변화는 냉철한 현실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는 실행하기는 '이기는'

경쟁 심화 등 어려운 경영 환경에도 불구하고, 가전 성수기와 안정적인 전장 수요 잔고 등을 바탕으로 성장세를 보였다.

다만 2분기에는 및 하반기에는 지정학적 갈등 장기화에 따른 유가 변동과 원자재 가격 상승 압력, 공급망 차질에 따른 글로벌 수요 변동성 확대 등이 경영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회사는 주력 사업별 수요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지역별 맞춤형 판매 전략과 공급망 운영 효율화를 통해 불확실성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류 CEO는 실행의 해법으로는 '품질·비용·납기'에 해당하는 근원적 경쟁력 재건을 들었다. 사업의 본질인 제품 리더십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AX로 속도를 높이고 제조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키워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본기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수많은 위기를 지나 여기까지 온 LG전자의 혁신 DNA와 저력을 믿고 모두의 작은 변화를 모아 LG전자의 미래를 바꾸자"고 구성원들을 격려했다.

/차현정 기자 hyeon@